

영 화



취향 따라 골라본다 “넌 뭐 볼래?”

뮤지컬, 로맨틱 코미디, 애니메이션...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다.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레 미제라블'은 물론이고,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 '26년'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개봉관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26년



감성·판타지·실화·코믹... '레 미제라블' '26년' '니코-산타 비행단의 모험' 등 풍성

■ 타워

108층 초고층 빌딩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로 실사 촬영과 CG 기술을 병행해 구현한 화재 장면이 인상적이다.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타워스카이의 시설관리 팀장인 싱글데이 대호는 사랑하는 딸 하나와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로 약속한다. 전설로 불리는 여의도 소방서의 소방대장 영기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와의 데이트를 약속한다. 모두가 행복한 그 날 저녁,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있는 타워스카이에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 설경구·손예진·김상경·김인권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하며 '화려한 휴가', '7광구'의 김지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토대로 1985년 런던에서 초연된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스크린으로 옮긴 뮤

지컬 영화다.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장발장을 중심으로 18세기 프랑스 사회상을 세밀하게 보여주며 'I dreamed a dream', 'Impossible dream' 등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가 압권이다. 주인공 장 발장의 휴 잭맨, 자베르 경감 역의 러셀 크로우, 관틴 역의 앤 헤서웨이, 코제트 역의 아만다 사이프리트 등은 연기와 함께 노래까지 함께 부르며 존재감을 보여준다. 특히 뮤지컬 영화 최초로 후시 녹음이 아닌, 촬영장에서 배우들의 노래를 라이브로 녹음해 현장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12세 이상 관람가>

■ 가문의 영광 5- 가문의 귀환

국내 코미디 영화의 대표 시리즈인 '가문의 영광' 시리즈 원년 멤버들이 박근형·유동근·정준호가 10년만에 다시 뭉쳐 내놓은 코미디물이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 사위를 맞아 조폭 가문의 새로운 출발을 꿈꿨던 이들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딸 진경의 소원대로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건설회사사를 세운다. 쓰리레이거의 3형제는 사위 대서를 자신의 가문을 집

어삼킬 요주의 인물로 정하고 그를 내쫓을 공리를 한다. 아이돌 스타 윤두준과 김민정이 새롭게 합류했으며 개그맨 김준현·양세형 등이 카메오 출연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 반창고

아픈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물이다. 소망관 강일은 3년 전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조하던 도중 만삭이던 아내가 비명속에 죽어간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다. 흉부외과 의사 미수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대수롭지 않게 돌려보냈다가 의료사고에 휘말리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의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은 강일에게 맞고소를 제안한다. 강일은 그런 미수를 양아치 취급하고, 강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미수는 그가 일하는 119 구조대 의용대원으로 지원한다. 무엇보다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고수와 한효주의 매력에 돋보이는 영화다. 여기에 마동석·김성오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5세 이상 관람가>

■ 주먹왕 랄프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의 명가 디즈니 픽사가 내놓은 애니메이션이다. '다고쳐 펠릭스' 게임의 악당으로 등장하는 랄프는 게임 탄생 30주년 기념 파티에서 게임 속 캐릭터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이 모든 게 자신이 나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랄프는 자신도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영웅이 되리라 결심하고 자신이 속한 게임을 빠져나와 '슈가러쉬'라는 레이싱 게임의 세계로 뛰어든다.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정준화·소연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전체 관람가>

■ 니코-산타 비행단의 모험

전세계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멈춰버린 산타마을 선물 공장을 지키기 위해 '니코'와 형밖에 모르는 귀요미 동생 '조니'의 대실원 어드벤처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산타의 썰매를 끄는 산타비행단인 아빠를 닮아 하늘을 날 수 있는 꼬마 사슴 '니코'는 크리스마스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하자 독재자 화이트 울프 등과 대결하며 크리스마스를 지키려 한다. 주원, 나르샤, 김원효 등이 더빙에 참여했다. <전체 관람가>

■ 잠베지아-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짜릿한 비행소를 그린 애니메이션. 외딴 섬에서 아빠 텐다리와 단둘이 살고 있는 꼬마 매 카이는 친구도, 신나는 일도 없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다. 어느 날 섬에 불시착한 황새 고고와 종알이에게 새들의 파라다이스 잠베지아 얘기를 듣게 된 카이는 아빠의 충고를 무시한 채 홀로 신비의 나무섬으로 모험을 떠나게 된다. 잠베지아에 무사히 도착해 신나는 시티 라이프를 즐기던 카이는 꿈에 그리던 잠베지아의 파수꾼 '허리케인'에 입단하게 된다. 유준상·노홍철·하하가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전체 관람가>

■ 호빗-뜻밖의 여정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 J.R.R 톨킨이 어린이들을 위해 쓴 동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최고의 판타지 영화로 불리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만든 피터 잭슨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으며 '호빗' 역시 3부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호빗'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보다 10년 늦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상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 격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프로도(일라우저 우드)의 삼촌 빌보 배긴스(마틴 프리먼 분)가 어떻게 '절대 반지'를 얻게 되었는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미 200만 관객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흥행중이며 시리즈 2편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는 2013년 12월 개봉 예정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 26년

강풀 작가의 인터넷 원작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으로 300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중이다. 광주항쟁 당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26년이 지난 후 '그 사람'을 직접 단죄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광주 수호와 증진보소 광진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 서대문소속 경찰 권정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2세인 세 사람은 보안업체 대기업 회장 김갑세와 그의 비서 김주안의 제안으로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진구·한혜진·이경영·임슬옹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가수 이승환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타워



레 미제라블



가문의 영광 5-가문의 귀환



반창고



주먹왕 랄프



니코-산타 비행단의 모험



호빗 뜻밖의 여정

謹賀新年

지난 한해에도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 **kjia** 한국평생교육발전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100세 시대!
평생교육이 함께합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인생 100세시대"를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된 만큼 다채로운 삶을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꾸준한 준비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것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